

허영만의 '자전거 식객'



15 울릉도



편집 | 김현우 기자 pudgala@donga.com 트위터 @pudgala72



강력한 서풍을 받아 파도가 거세게 밀려드는 서면 구암마을 부근 해변에서 스토브에 물을 끓여 핸드드립 커피를 준비하는 중. 울릉도의 해변은 모래 대신 동글동글한 울돌이 펼쳐져 있어 파도가 들이칠 때마다 돌이 밀리며 멧돌 가는 소리가 났다.

울릉도 저동항서 맞은 오징어내장탕

“흠…. 갈바람…. 내일부터 섬이 텅 비겠구나.”
 도동항이 저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에 자리잡은 울릉산악회 구조대장 최희찬씨. 아까부터 부엌의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그리고 보니 창문 앞의 수풀이 바람에 스산하게 흔들리고 여느 때 같으면 밤바다 수평선에 집어등으로 불빛의 띠를 이루고 있어야할 오징어배들도 자취가 없다. 울릉도 도착 첫날부터 일행을 축축하고 하릴없게 만든 가을비는 그칠 줄 모르고 앞치 데 덮친 격으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바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곳 사람들은 바람을 세기와 방향, 그리고 계절에 따라 구별해 달리 부르는데 ‘갈바람’은 가을에 부는 강한 서풍을 뜻한다.

“갈바람이 한번 오면 문가도 이들은 썰리 분다고 봐야지. 여객선은 몬 플레고…. 내일 사람들이 육지로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라모 해안 일주도로가 한산해질 끼고, 자전거 타기에는 딱 아이겠는요?”
 밤이 이슬해질수록 바람은 사나워져만 가는데, 바깥 날씨에 갇혀 집안이 더욱 아늑하고 포근하게 느껴진다. 허영만 화백과 우리들은 최대장의 어머니가 지난 봄 담근 콩치즈갈, 명이나물, 그리고 이런저런 살아가는 얘기를 안주삼아 최대한 느린 속도로 술잔을 기울였다. 섬의 밤은 길었고 비바람은 밤새 으르렁댔다.

●허 화백, '집단가솔'서 '침낭과막걸리' 팀으로 변신(?)

이튿날 아침, 아직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야영 채비를 한 허영만 화백은 '침낭과막걸리' 멤버들과 함께 성인봉

으로 향했다. 허 화백이 구심점인 '침낭과막걸리' 클럽은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등산과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집단가솔 자전거 전국일주 울릉도 구간을 앞두고 허 화백은 말했다.

“울릉도는 걷기에 아름다운 섬이다. 이번만은 자전거보다 야영하며 트레킹을 하자.”

사실 울릉도는 혹독하게 가파른 고갯길들이 도사리고 있고 섬목에서 저동 사이의 해안도로가 끊겨있어 석포에서 저동 내수전까지는 부득이 험한 산길을 달려야 하므로 자전거로는 만만치 않은 곳이다. 하지만 일생일대의 자전거 전국일주가 목표인 나머지 멤버들은 지금까지 1년 넘게 달려온 길이 아까워서라도 울릉도 자전거 일주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허 화백의 제안에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인 뒤 막상 울릉도로 떠나는 강릉 안목항에 다들 자전거를 끌고 나타나자 트레킹 준비만 해온 허 화백이 느껴질 배신감은 짐작할 수 있을 터. 어쨌든 허 화백이 이끄는 트레킹팀은 길을 떠났고, 대장을 잃고 별개로 움직이게 된 자전거팀은 곳은 날씨에 발이 묶여 도동과 저동 동네길에서 자전거로 위망업을 하며 따분한 하루를 보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강하고 빗줄기가 거세 산으로 떠난 허 화백 일행들의 약진고투가 예상됐는데 자정

이 가까운 시간에 기어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날씨가 나빠 성인봉까지 진출하지 못하고 텐트를 날려버릴 듯한 강풍을 무릅쓰고 말잔등에서 야영 중 멤버 한명이 미끄러져 발목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야간에 골절상 환자를 들것으로 후송하는 난감한 상황에서 최희찬 구조대장이 급히 이곳저곳에 전화를 돌려 공군의 케이블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이 지면을 빌어 부상한 민간인을 위해 심야에 케이블카를 가동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울릉도 주둔 공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갈바람 맞서 울릉도 일주, 집채만한 파도의 스펙타클

사흘째 아침 도동을 떠난 자전거팀은 울릉도를 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 비는 그쳐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졌으나 여객선이 여전히 운항할 수 없을 만큼 바람이 매섭다.

갈바람은 서풍인지라 도동에서 사동을 넘어 서면 테하리까지 서쪽을 향하는 것이 고난의 행군이다.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 탓에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처럼 자전거의 기어비를 최대한 낮춰야 넘어지지 않고 겨우 겨우 전진할 수 있었다.

》 15면 '자전거 식객'으로 이어집니다



자전거 대신 트레킹을 선택한 허영만 대장

자전거 안 가져온 허 화백 트레킹 변신

강풍에 비바람 거세 악! 멤버 발목골절 공군 케이블카 후송

HYUNDAI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THE NEW 제네시스 쿠페 탄생

350마력 GDI 엔진[3.8], 275마력 TCI 엔진[2.0] [고급휘발유 기준] | 8단 오토 트랜스미션